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하는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가 '마음을 듣다'는 주제로, 오는 13~16일 전주 풍남문·경기전광장과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세계종교문화축제.

▶ '마음을 듣다'…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 13일부터 4일간 전북에서

서로 다름 인정, 화합·소통 다진다

전주 풍남문·경기전 광장·익산·진안 일대서
올해 영화·음식·기록 콘텐츠 개발 추진에 역점
여는 마당·어울림 마당·종교 포럼 등으로 구성

불교·천주교·원불교·개신교 등 종교인들이 각기의 '종교문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세계종교문화축제'.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주관하는 2017축제가 '마음을 듣다'는 주제로, 오는 13~16일 전주 풍남문·경기전광장과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는 종교영화·음식·기록에 대한 콘텐츠 개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 종교문화유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축제는 여는 마당·종교열린 마당·종교문화 마당·종교어울림 마당·세계종교 포럼·닫는 마당으로 구성됐다. '여는 마당(개막식)'은 13일 오후 6시 전주풍남문에서 진행된다. 각 종교의 성직자·수도자·수행자로 구성된 하늘소리의 중창, 스님과 목사님이 함께 협연하는 색소폰 연주, 종교지도자들의 환담 그리고 부부가수 정태춘·박은옥의 특별축하공연이 펼쳐진다.

14~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경기전광장에서 진행되는 '종교열린 마당'에서는 각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다. 월주스님의 특강을 비롯해예수병원이 설립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잉골드의 생애를 재연한 공연,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일대기를 담은 공연, 프랑스 선교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등이 소개된다.

'종교문화 마당'은 각 종교의 특색을 살필 수 있는 자리. 11일~15일 전주시청 로비에서는 아름다운 사연들이 담긴 여러 종교의 기록과 성물 등이 전시되며, 기증과 기탁도 받는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전시에는 현재 활동 중인 공예인 예술가 등의 성물을 비롯하여 전주한지로 된 기록유물의 뛰어난 복본기술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건축 송광사~천호성지 일대를 돌아보는 탐방을 갖는다. 이 외에도 종교영화및 음악, 종교인들의 릴레이 버스킹을 만나 볼 수 있다. 버스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주한지노트 제작에 쓰이며, 이는 유네스코를 통해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

'세계종교 포럼'은 16일 오후2시 익산 원불교중앙총부에서 열린다. 이날 자리에는 UN NGO 및 종교 NGO 대표를 역임한 리베라토 바티스타가 참석해 특별강연을 펼치며, 종교지도자들의 대담이 진행된다.

박동진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사무처장은 "로베르토 바티스타의 이번 방문으로 (사)세계종교평화협의회에 UN 종교 NGO 회원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협의회가 UN에서의 세계종교 역할과 관련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광재단, 영재교육 체험교실 마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창의씨앗(SEE ART) 발굴교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오는 9일 오후 1~5시 영재교육 체험교실 및 학부모 특강을 마련한다.

행사는 '내 안의 예술영재성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도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과 문학 분야의 영재성 검사와 영재교육 체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숭실대학교 융합영재교육전공 태진미 교수의 창의융합 특강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재단은 오는 22~23일에는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예술영재 발굴 캠프를 갖는다. /정해은 기자

독서대전 기획전시 연장 운영

전주시, 시민 반응 좋아 10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축제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황리에 치러낸 전주시가 독서대전에서 선보인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운영된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특별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한국의 꽃심 전주가 권하는 책과 글 △유명인이 권하는 한권의 책 △한 단어, 한 문장, 한권의 책이 그대에게 닿기까지 △문학의 본향, 전라북도 등 총 4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시민들의 성원속에 비록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독서와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독서축제와 강연, 기획·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고은 시인의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비롯한 공연·행사·강연, 체험, 학술·토론 등 28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과 함께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정해은 기자

생명의 원천 조형화

최만식 '십장생과 다이아몬드' 전

최만식 작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의해 언젠가는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연을 기록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듯 십장생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생명이 장구하다는 해·산·물·돌·구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 등 열 가지의 장생물을 소재로 아름다움과 생명의 원천을 포착해 조형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작가는 조선시대에 꽃피운 민화 '십장생도'를 독창적인 관점으로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상적이고 풍부한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작품은 경험에 의한 다양한 작업의 요소들이 축적돼 현대적인 조형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이미 육안에 의한 객관의 산수가 아니라 작가의 주관과 감정에 의해 번안되고 해석됨으로서 전혀 다른 조형 요소로 가공된다.

이와 함께 영원불멸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작품의 연결고리로 잇는다. 작가는 어느 것도 영원함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본성의 결정체라고 본다.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 캠핑

23일부터 이틀간 임실 덕치 강변사리마을 캠핑장서

하늘이 높아지는 맑은 가을을 맞아 김용택 시인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낭만 가득한 특별한 이벤트가 임실군에서 열린다.

임실군 덕치면 강변사리마을과 김용택 시인 문학관이 주최하는 '제1회 가을을 여는 문학캠핑'이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강변사리마을 캠핑장에서 개최된다.

먹고 즐기는 유흥적 놀이 문화에서 벗어나 강변사리마을 동아리의 연극과 기타 공연 등 문화예술활동을 비롯해 섬진강 길과 자연을 느끼는 감성캠핑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김용택 시인과 함께 글을 쓰고 도란도란 모여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마련돼 정서적 감수성을 높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을 구워 주고 느티나무 마을 국수를 제공하는 등 푸짐한 농촌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또한 창비, 문학동네, 예담, 푸른숲 등 국내 저명한 출판사의 후원으로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천담마을 섬진강변에 위치한 강변사리마을 캠핑장은 산과 강이 아우러진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14개의 오토캠핑 사이트를 갖추고 개수대, 물놀이장, 화장실, 정자, 도서관, 휴게실, 회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완비돼 있다.

한편 '제1회 가을을 여는 문학캠핑'은 총 14가족 50여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gang42.com)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